

한 눈으로 보는 경제		6월
코스피지수	2155.07	↓ -21.39
코스닥지수	655.31	↓ -14.62
환율(원·달러)	1172.10	↑ +5.00

비즈니스 | 5대 금융그룹 CEO들의 2020년 출사표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시장 위기 정면돌파”

저금리·저성장 기조 극복 위한 카드
KB,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나설 듯
우리금융도 증권사·보험사에 관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왼쪽부터). 2020 경자년 금융 키워드로 국내·외 인수·합병(M&A)이 뜨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

금융그룹이 2020 경자년 출사표로 국내·외 인수·합병(M&A)을 꺼내들었다. 5대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은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 적극적인 M&A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내외 금융시장의 전망이 불확실한 데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와 치열한 경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 카드를 다룬다. 지난해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하면서 리딩 금융사에 오른 신한금융의 조용병 회장은 신년사에서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확장 및 강화 관점에서 국내·외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

르는 전략적 인수합병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임에 성공한 만큼 리딩 금융사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다. 반면 올해 임기 마지막 해인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그룹 포트폴리오 완성 및 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그룹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M

&A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만큼 최근 M&A 시장에서 매물로 나온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체제 2년 차를 맞은 우리금융도 M&A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대에 힘

을 쏟는다. 연임에 성공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전략적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중소형 M&A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등 수익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확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의 인수와 함께 푸르덴셜생명 인수에도 관심을 보여 상황에 따라서는 KB금융과 맞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밖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신남방지역의 은행 계좌가 없거나 대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품을 수 있는 글로벌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동남아 시장에서 M&A를 암시했다. 또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은행의 이자이익에 치우쳐있는 수익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그룹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신세계면세점, 올해 ‘뽁뽁이 포장’ 퇴출

신세계면세점이 면세업계 최초로 포장 완충재인 에어캡(일명 뽁뽁이) 사용 제로화에 도전한다. 에어캡을 대신해 친환경재생지를 사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에코박스(사진)를 도입해 올해 안에 에어캡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장품 등 상품성이 훼손되지 않는 소포장 상품은 추가 포장을 하지 않는 ‘무포장’을 통해 포장재 추가 사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에코박스는 완충재가 들어있는 직사각형의 박스로 에어캡과 친환경재생지를 대신한다. 에어캡은 인천공항에서만 연간 1000여 톤을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김재범 기자

KEB하나은행 ‘H-PULSE 라운지’ 오픈



KEB하나은행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 밀레니얼 Z세대를 위한 문화공간 ‘H-PULSE 하나멤버스 라운지’(사진)를 열었다.

다. ‘H-PULSE’는 하나은행·홍대거리의 약자 ‘H’와 리듬·홍분·활기를 뜻하는 ‘PULSE’를 붙여 개성 넘치는 공간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문화행사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나멤버스 회원에게 스터디 모임, 세미나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한다.

롯데카드 ‘GS&포인트 롯데카드’ 출시

롯데카드가 GS와 제휴한 ‘GS&포인트 롯데카드’를 내놓았다. GS리테일(GS25·GS수퍼마켓·GS프레시·탈라블라)과 GS샵에서 이용하면 5% 결제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GS칼텍스에서 3만 원 이상 주유하면 건당 3000원을 월 3회까지 결제할 할인 해준다. 전월 이용실적이 40만 원, 70만 원 이상일 경우 각각 1만5000원, 3만 원의 월 통합 할인한도를 제공한다. 롯데그룹의 엘포인트와 GS그룹의 GS&포인트를 동시에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시중은행 “취 테마 신년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적·예금 등 신규 가입자에 경품 증정

2020년 쥐띠 해를 맞아 시중은행들이 쥐띠 테마로 한 신년 이벤트에 한창이다. 신한은행은 2월 말까지 ‘2020년 새해 복 쥐를 잡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급여 드림적금, 마이홈 적금, 주거래 드림적금, 인싸 자유적금, 첫거래 세배드림적금 등의 상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 상품에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을 증정한다. 또 응모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해 골드바 1돈을 선출한다. NH농협은행은 1월 말까지 ‘잡아라 황금쥐! 받아라 세벳돈!’ 이벤트를 실시한다. 예금,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출, 펀드, 카드 중 1개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NH스마트뱅킹에서 쿼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7명에게 황금쥐(순금 10돈) 등을 준다. Sh수협은행은 3월 말까지 ‘갯치 어 마우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적금 상품에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한 후 자동이체 등록을 하면 추첨을 통해 372명에게 여행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쥐띠 고객 50명을 추첨해 카카오프렌즈 무선마우스를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NH농협은행의 ‘잡아라 황금쥐! 받아라 세벳돈!’ 이벤트. 사진제공 | NH농협은행

하와이 ↑ 동남아 ↓ ...신혼여행지, 장거리가 대세

하나투어 분석...동유럽도 상승세

규모를 줄인 실속있는 결혼식, 이른바 스몰웨딩이 트렌드를 이루는 가운데 신혼여행은 멀리 오래 가면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투어가 신혼여행 고객들의 5년간 예약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혼부부 중 19.6%가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유럽(16.2%)이 인기였다. 하와이는 2016년 1위로 오른 이후 해마다 비중이 증가했다. 유럽은 체코 프라하를 비롯한 동유럽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역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전체 신혼여행 목적지 중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49.3%에서 2019년 42.5%로 감소했다. 여행지가 먼 곳을 선호하면서 신혼여행 관련 지출도 2017년 1인당 229만 원에서 2018년에는 241만 원, 올해는 251만 원의

로 늘었다. 한편, 하나투어는 11일과 12일 서울 인사동 센터마코 호텔을 포함한 전국 10개 도시에서 예비부부들이 최신 신혼여행 트렌드를 확인하고 각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예약하도록 ‘신혼여행 박람회’를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에듀윌

2019 결산 ‘숫자로 보는 에듀윌 지식인’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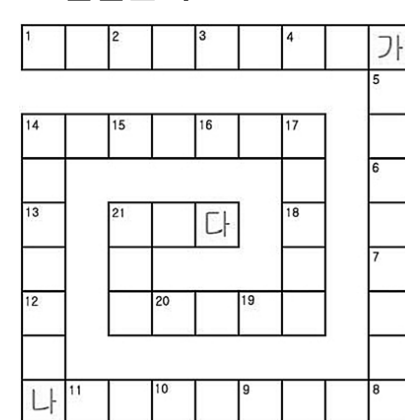
“공인중개사 시험 후기·난이도 질문이 가장 많아”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19년 결산 ‘숫자로 보는 에듀윌 지식인’을 공개했다. ‘에듀윌 지식인’이란 공인중개사 합격자와 학습자를 연결해주는 지식 Q&A 서비스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또는 현직자가 학습법이나 실무 관련 고민 등을 올리면 공인중개사 합격생, 교수진, 수험생 등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사이트다. ‘에듀윌 지식인 공인중개사’는 2019년 8월 최초로 오픈했다. 오픈이래로 12월20일까지 방문 수가 1380% 성장하면서 ‘공인중개사 대세’를 입증했다. 이외에도 ‘총 조회한 페이지 수가 230만7000건을 기록하고 1만 5930개의 누적 질문이 올라오는 등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윌 지식인 검색어 TOP 5에는 모의고사·민법·공법·세법·이의신청·동형모의고사·연봉·공시법·합격자 모임·실전모의고사 등 다양한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키워드가 차지했다. “10월26일 시험 어떠셨나요?” 등 시험에 대한 질문이 조회수 4만8338건을 기록하며 인기 질문 1위로 올랐고, 이어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질문이요!”, “31회 시험 더 어려워질까요?”, “1년 공부했지만 1차만 하기도 버거운 게 정상인가요?” 등의 질문이 많은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에듀윌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에듀윌 지식인 공인중개사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험생들과 합격생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낱말문제



01. 물을 모아 두기 위하여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큰 못. 02. 길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 03.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04.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05. 끝부분이 아주 많이 닳아서

자루만 남은 비. 06.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히 피하기 위해 마련한 출입구. 07.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08. 태어난 해와 달과 날. 09. 날마다 또는 늘 있는 일. 10. 핀란드식의 증기 목욕. 11. 결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2.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 13. 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 14. 맛을 보도록 조금 내놓은 음식. 15. 확정 판결이 집행되어 자유의 구속을 받고 있는 죄수. 16. 국가, 민족, 개인 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신. 17. 조선 시대에,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18. 19세기경에, 민간에 전래하는

문헌 소화(笑話)를 집대성한 설화집. 19. 무척재로 김치를 담그는, 뿌리가 잔 무. 20. 하는 일 없이 공연히 바쁨. 21. 몽톡하고 크게 생긴 코. 또는 그런 코를 가진 사람.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쓴 다음 가나, 다를 이어놓으면 여러번이 잘 아시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